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 경영 혁신·네트워크 확대

‘트렌드 코리아 2025’ 강연, 최신 경영 트렌드와 중소기업 대응 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1회 CEO 지식향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CEO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하여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행사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 협회, 전북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최신 경영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전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2025년 대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소재 중소기업 CEO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희망하며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한민국 주요 트렌드 10가지를 이야기해서 참석한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CEO 지식향연은 단순한 강연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장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는 방향성과 맞춤형 소비, 친환경적 가치 등 협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올림픽 유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 반 동안 기업 중심

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조 혁신,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채입재 있는 안내를 했으며, 재단 한명관 이사장은 올해에는 증액된 1조2,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여 참석한 소상공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도와 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CEO 지식향연과 같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9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캠페인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바이오진흥원,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 관심 참여 고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은미 원장,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9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GBCH 챌린지’는 Go Beyond, Create Harmony의 약자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뜻하며 올림픽 유치를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사단법인 전북사회서비스원장으로부터 릴레이를 이어받은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진흥원 임직원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

기 위해 기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BCH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이은미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예코융합산업연구원 서민강 원장과 전북도립미술관 이애선 관장을 지목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권 하수도시설 예산, 3204억원 국고 지원

전북환경청, 14개 시·군과 간담회 통해 실행행률 제고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일까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4개 시·군별로 지원될 예산(국비) 집행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전북지역 하수도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56개 사업(계속사업

139개, 신규사업 17개), 총 3,204억원(국비 기준) 규모이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에 1,754억원(54.7%),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량에 54억원(1.7%), 지역사회의 부족한 하수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증설에 963억원(30%),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기타 사업에 433억원(13.5%)을 지원한다.

시·군별 지원액은 전주시 495억원(15.4%), 군산시 462억원(14.4%), 익산시 427억원(13.3%), 고창군 315억원(9.8%), 무주군 242억원(7.6%), 정읍시

216억원(6.7%), 부안군 203억원(6.3%) 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신속한 예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14개 시·군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국고보조 예산에 대해 월·분기별 집행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의 올해 국비 예산(3,204억원)은 지난해 국비 예산(1,418억원) 대비 128%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실행행률 목표(환경부 90%) 달성을 위해 3회에 걸쳐 지자체와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집행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 핀테크 스타트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핀테크 창업생태계를 조성, 혁신금융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공간 지원, 역량 강화교육, 핀테크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도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금융혁신 스타트업의 발굴과 함께, 도의 기업의 본사 이전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디노랩’과

연계해 투자유치 지원과 맞춤형 스케일업을 더욱 강화한다.

‘디노랩(DINNOlab, Digital Innovation Lab)’은 우리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금융 네트워크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추가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확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전북농협, 범농협 임직원 재난안전 훈련교육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9일부터 이틀간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업체하여 임직원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임직원 대처 능력 향상 및 골든타임 확보와 임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재난안전 훈련교육 주요내용은 △화재예방 교육 △자연재난 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전문성 있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현장과 사무실에서 위급상황에 임직원들이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 2024년 종합건설사 실적신고 결과 발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종합건설 회사 792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신고받는 결과 767개사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실적신고액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미신고 업체수도 전년도 18개사에서 25개사로 7개사가 증가, 종합건설업 순위분기점 50억미만 업체수도 전년도 515개사에서 518개사로 3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4년도 도내 실적 1위는 공공 및 민간건설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년도 5위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고, 전년도 4위였던 (주)금도건설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3위를 기록했으며, (주)제일건설이 4위, 계성건설(주)이 5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 50억원대로 (주)개성토건(21

위), 우진건설(주)(23위), (주)창해이엔지(27위), 제이에스(주)(30위), 성우건설(주)(32위), 영복건설(주)(33위), 명진토건(주)(34위), 명화건설(주)(35위), (주)태영종합건설(37위), (주)서도종합건설(39위), (주)성원씨앤씨건설(40위), (주)삼부종합건설(42위), (주)산정현건설(44위), (주)유백건설(45위), 삼흥종합건설(주)(47위), (주)태진종합건설(49위), (주)신원건설(50위)이 새롭게 진입하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이번 실적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기성 신고액은 감소하고 무신고업체와 무실적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 얼마나 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인지 여실히 확인된 신고였다”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공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